

생태적 사랑의 모색*

이창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생태적 사랑의 당위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
- III. 동등배려와 생태적 적용
 - 1. 동등의 관점과 생태적 사랑
 - 2. 배려의 관점과 생태적 사랑
- IV. 내쉬의 생태적 사랑론 그리고 '생태적 동등배려'론과의 비평적 대화
 - 1. 내쉬의 생태적 사랑 이해
 - 2. '생태적 동등배려'론과의 비평적 대화 탐색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05>

* 이 논문은 2021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clee@puts.ac.kr

• ABSTRACT •

Seeking Ecological Love

Prof. Lee, Chang-H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Facing the reality of a serious ecological crisis, where the complete order of the life world is not preserved but rather the symptoms of various forms of collapse are clearly witnessed, it would not be too much to say that Christian churches and believe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these crises.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a self-evident theological truth to respect the value and position of God's created world and all beings in the world and to implement concretely such respect through altruistic acts for all the beings of the world. Honoring these theological ethical truths and justifications, I will respond to the ecological crisis by carrying out the task of seeking ecological love. My task here is two-fold, I will justify ecological love theologically, focusing on Gene Outka and Jürgen Moltman. Also, I will attempt to explore Outka's and James A. Nash's theories of ecological love and expand the horizon of ecological love through critical dialogue between the two.

Key words: Gene Outka, Jürgen Moltmann, James A. Nash, ecological love,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온 생명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적 위기로 인해 지구 상에서 생명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생태계 위기에 대해 민첩하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세계의 온전한 질서가 보존·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붕괴의 증후들을 선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엄연한 생태적 위기의 현실 앞에서,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해 절박하게 또 실효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정언적 명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가치와 지위를 존중하고 그러한 존중을 이타적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자명한 신앙적 신학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 윤리적 진실과 당위적 명령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바로 인식하면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생태적 사랑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생태적 위기에 응답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피조세계와 세계 안의 동료 존재들에 대한 존중은 규범적 당위이기에 모든 인간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랑의 윤리를 생태적 맥락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적 사랑의 규범적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발전적 전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필자의 연구는 사랑의 윤리의 생태적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기독교 사랑의 윤리 담론의 심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생태적 사랑의 신학적 정당성을 아우카(Gene Outka)와 몰트만

(Jürgen Moltmann)을 중심으로 논구할 것이다. 아웃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론을 제시함으로써 생태적 사랑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의 근본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몰트만은 사랑에 대한 아웃카의 생태적 정당화를 창조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심화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이어서 아웃카의 ‘동등배려’의 개념을 활용하여 기독교 사랑 이해의 생태적 확장을 모색하고 내쉬(James A. Nash)의 생태적 사랑론과의 비평적 대화를 통해 생태적 사랑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후자는 생태적 사랑을 나름대로 이론화하여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자가 모색하는 비평적 대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이 아닌 생태계의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같음과 다름을 논구하며 생태적 사랑의 독특성을 탐색할 것이다. 생태적 사랑 실천의 성숙을 위한 신학적 윤리적 제안을 함으로써 본 논문을 맺을 것이다.

II. 생태적 사랑의 당위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

하나님을 사랑함과 타자로서의 이웃을 사랑함은 본질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역으로 전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하나님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아웃카는 ‘신중심적 틀’(theocentric frame)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사랑의 대상범위에 대해 논하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며 인간중(種)

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는 그 어떤 조건설정이나 차별이 없이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¹⁾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인간에만 제한되는가? 하나님은 인간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신학적 진실로부터 아웃카의 신중심적 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 뿐 아니라 창조하신 다른 모든 존재들도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태적 보편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모범으로 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태적 사랑 실천의 모범으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구현하신 사랑의 이상 곧 타자를 위한 온전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생태적 사랑의 규범적 본질로 존중해야 할 것이며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세계안의 모든 존재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세계안의 모든 존재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생태적 사랑에 대한 아웃카의 토대적 정당화를 신학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어 몰트만은 적합하고 유효한데, 왜냐하면 창조·섭리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등의 관점에서 생태적 사랑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를 발전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이다.²⁾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동일시와 이 둘 사이의 극단적 분리(혹은 단

1) Gene Outka,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in Edmund N. Santurri and William Werpehowski, eds., *The Love Commandment: Essays in Christian Ethics and Philosoph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2), 1-3.

2) 몰트만의 사랑의 윤리를 신학적으로 논구함에 있어 기독교적 접근도 필요함을 밝힌다. 특별히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상수훈을 윤리적으로 풀이하면서,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으로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완수하는 것을 이상적인 규범적 지향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Jürgen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김근진·김명용 역, 『예수그리스도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88-95. 또한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절)를 모두 경계하면서, 몰트만은 ‘코이노니아’(사귄)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내적 임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몰트만은 신적 생명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과 밖을 향한 사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과 더불어 사귄의 관계를 이루어 가길 열망하시고 또 그 열망을 구현해 가신다.³⁾ 하나님은 이 사랑의 사귄 안에서 세계와 피조물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경험케 하실 뿐 아니라 신적 사랑의 ‘의지와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신다. 사귄의 구도를 견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세계의 혼합이나 동일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몰트만은 의지와 본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뭉’을 피조물과 공유하신다는 점을 밝히면서 단순한 피조물됨에 머물지 않고 주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귄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⁴⁾ 특별히 온 생명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피조세계 안의 모든 존재들을 연결한다(시 104:30). 성령님은 이 세계 가운데 임하셔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지탱하시고 때론 함께 고통하시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하나로 묶고 계시기에,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생명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의 운명을 함께 나눈다.

아울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몰트만의 이해를 종말론적 구원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유익하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설정해 놓은 임의적인 차이나 차별적 구분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을 보편적으로 포괄하는 사랑의 삶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을 강력하게 권하신다는 점을 몰트만은 지적한다.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김균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150-51.

3)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31-32.

4) 위의 책, 13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피안적 ‘마지막 날’에야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죽음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예기적으로 선취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령의 현재적 임재와 역사 가운데 새 창조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창조는 온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종말론적 구원의 역사인 것이다.⁵⁾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창조는 태초의 창조의 결과로서의 온 세계와 모든 존재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이며 우주적이다.⁶⁾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사랑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깊은 공감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신적 ‘코이노니아’에 초청하여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되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우주 안의 모든 존재를 그 사랑과 사귄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다시 말해, 대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데, 여기서 보편성은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포괄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의 모범임은 규범적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생명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 사랑의 보편적 대상범위를 따라 인간의 사랑도 인간을 넘어서서 피조세계 안의 모든 존재를 향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상응하여 깊은 공감으로 친밀한 사귄을 추구하는 사랑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몰트만의 확고한 규범적 인식이다.⁷⁾

5) Moltmann, *Das Kommen Gottes*, trans. Margaret Kohl, *The Coming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25-26.

6) Moltmann,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121-25.

7)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91-355.

III. 동등배려와 생태적 적용

아웃카는 사랑 혹은 인간 아가페(human agape)를 ‘동등배려’(equal regard)⁸⁾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는 동등배려로서의 사랑에 대한 아웃카의 이해를 진술하고 그의 기독교 사랑론을 생태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대상 이해에 있어서 모두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대가나 반응을 바라지 않고 대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이타적 실천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일방향성’을 규범적 중심으로 설정하는 아웃카의 아가페론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 대한 사랑의 윤리를 전개하는데 있어 곧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윤리를 생태적으로 확장하는데 있어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여기서는 대상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 ‘동등’ 개념과 사랑의 주체의 헌신과 연관된 ‘배려’ 개념⁹⁾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 생태적 사랑의 관점에서 논술하고자 한다.

1. 동등의 관점과 생태적 사랑

동등배려로서 사랑은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사랑이다.¹⁰⁾ 사랑의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 맞추어 대상을 평가하여 사랑의 유무, 사랑의 강도, 사랑의 연속성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격심사를 뛰어넘어 사랑한다는 동등배려의 기준은 생태적으로 적

8) Outka, *Agape: An Ethical Analysi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2), 9.

9) Outka, "Agapeistic Ethics," in Philip Quinn and Charles Taliaferro, eds.,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Oxford: Blackwell, 1997), 483.

10) 아웃카는 모든 인간이 갖는 동등한 가치 인식을 내포하는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심사를 뛰어넘는 배려'(unqualified regard)를 아가페에 대한 정의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Outka, "Comment on '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6(1998), 438.

용할 때도 적합하고 또 유효하다. 사랑의 의도와 행위를 위한 그 어떤 조건도 설정하지 않고 사랑 자체가 사랑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생명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준을 끌어낼 수 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 또한 생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가치 인식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가?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가치인식을 생태적으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도무지 축소할 수 없을 만큼 꼭 찬 가치의 존재로 또 다른 어떤 존재에 환원되거나 환치될 수 없는 독보적 가치의 존재로서 가치인식하고¹¹⁾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긍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고 확고하다. 인간을 이러한 가치인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신학적이다.¹²⁾ 아웃카의 비판가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칸트주의적 인식이 주된 근거가 아니라 창조와 구원을 통해 선명하게 또 확고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가치 평가와 인식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신학적이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창조 세계 안의 모든 존재들은 그 가치에 있어 동등하다. 창조자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주와 다른 피조물들을 신적 창조의 결과들 중 하나인 인간을 위한 자원이나 생존의 터전으로서 곧 인간 생존의 수단적 근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몰트만이 역설하는 대로, 창조의 완성(혹은 절정)은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에 있다. 곧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11) Outka, "Agapeistic Ethics," 482-84.

12) 위의 논문, 487-88.

만물과 함께 이루시는 안식에 있다는 말이다.¹³⁾ 이를 인간 편에서 진술한다면,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창조의 절정인 것이다.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 된다는 신학적 진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존재론적 가치론적 우열(혹은 차이)을 설정하시거나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점, 모든 피조물들은 다양한 생명의 양식(樣式)을 보유하고 각 생명에 고유한 잠재성을 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사귀를 추구하게 된다는 점 등을 추론할 수 있다.

구원론적 섭리의 관점에서 신적 창조의 결과들 사이에 차이는 없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섭리적 사랑으로 인간만을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의 대상은 창조하신 ‘모두’를 포괄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담긴 열정과 헌신의 관점에서 인간을 비롯하여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혜나 편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존재들을 각각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계획과 잠재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아울러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대상은 개별 존재로서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하여 전인을 구원하시며, 인간만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신다. 로마서의 증언대로, 피조물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갈급함 속에 있다(롬 8:18-22).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갈망에 응답하시고 그들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며 종말론적 완성에 응답하는 찬양의 주체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기에, 구원론적 관점에서 인간중심적 배타성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3) Moltmann,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326-30.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역사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동등하다. 생명의 방식이나 역할 등의 관점에서 다름이 있을지 모르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우열 혹은 차이가 없으며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위계적 질서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러한 가치인식에 근거하여 사랑의 윤리를 논한다면, 모든 피조물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하며 사랑하되 ‘차별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규범적 귀결이 될 것이다.

2. 배려의 관점과 생태적 사랑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배려에 담긴 중요한 규범적 의미는 일방향성이다. 사랑의 대상의 대가나 반응에 상관없이, 그 대상을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사랑의 이유는 사랑의 대상의 조건이나 자격에 대한 평가도 아니며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대가나 반응도 아니다. 무언가 반대급부가 있기에 혹은 반대급부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거나 필요로 하기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타산적 계산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웃카의 생각이다. 동등배려의 일방향성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의 사랑에 적용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증언을 통해 돌봄이나 사랑의 대상인 반려동물이 인간 행위자가 보이는 반응과는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대해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반응에 상관없이 일방향적으로 돌보고 사랑할

14) Outka, *Agape*, 16-20.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 규범적으로 그러한 일방향성을 규율할 수도 있는 근거를 반려동물의 반응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반응에 상관없이 대상을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방향성’의 규범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랑의 궁극적 결실로서 친밀한 사귄 혹은 쌍방적 관계 형성을 생태적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반려동물의 예에서 본 대로,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의 개시와 그것에 대한 반응 그리고 재반응이 이어지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일종의 쌍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관계의 심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생명의 종류에 따라 반응의 유무나 양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생명체와는 쌍방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사랑의 궁극적 결실로서 쌍방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에,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주요한 반론은 인간의 사랑에서도 한계적 상황으로 인해 쌍방적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기희생적 이타성의 규범에 응답하여 헌신적으로 대상을 사랑하지만, 그 대상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도 없고 어떤 관계성을 형성할 수도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배려는 대상의 필요나 복지 그리고 최선을 찾고 찾았으면 온 힘을 다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헌신을 규범적으로 내포한다. 이 같은 행위자의 헌신은 생태적 사랑에서도 규범적으로 유효한가? 규범적 적용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반려동물과의 사랑의 관계를 예로 생각해 본다면, 반려동물에게 본성적인 혹은 나름대로의 필요나 복지

의 요건들이 있고 또 생명체로서 향유해야 할 최선의 조건도 존재하며 그러기에 사랑의 행위자는 그러한 필요나 복지 그리고 최선에 주목하여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행위자의 동기가 그러한 이타적 헌신에 대한 당위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든,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서적 지향(끌림)에 근거한 것이든,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여 그 헌신의 진정성이나 강도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사랑의 행위가 전개되는 증언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IV. 내쉬의 생태적 사랑론 그리고 ‘생태적 동등배려’론과의 비평적 대화

1. 내쉬의 생태적 사랑 이해

1) 생태적 사랑의 조건

인격 상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사랑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엄존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내쉬는 생태적 사랑의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인간들 사이의 사랑은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여기는 것을 전제하지만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신학적 도덕적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¹⁵⁾ “인간만이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판단에 응답할 수 있고, 생태계를

15) James A. Nash,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기독교 생태윤리』, 이문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234-35.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계의 물품 소비를 신중하게 억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 인간만이 창조적인 약탈자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도덕적인 면에서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지 않다.”¹⁶⁾

둘째, 기독교 사랑의 규범적 요체를 이타적 자기희생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사랑의 규범을 자연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내쉬는 판단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 점을 생태적 사랑에 적용하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지고지순한 자기희생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랑은 무엇을 위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인 이타적 사랑이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설정한 목적과 동일하게, 자연과의 관계 형성과 둘 사이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¹⁷⁾

셋째, 기독교 사랑은 규범적 판단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기에, 인간들 사이의 상호적 사랑에 적용하는 같은 방식으로 생태적 상황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쉬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용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받아주며,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선으로 대하는 등 도덕적인 능력을 지닌 행위자 사이의 상호관계에서만 적절성을 [갖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생태적 상황에서는 (인간 상호간 사랑의 상황보다는) “덜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내쉬는 강조한다.¹⁹⁾ 다시 말해, 인간 상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의 다른

16) 위의 책, 235.

17) 위의 책, 236-37.

18) 위의 책, 237.

존재들 사이의 사랑, 이 두 사랑이 규범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특별히 다름의 관점에서 동일한 규범적 내용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구현의 방식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쉬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2) 기독교 사랑의 중요 관념들과 생태적 사랑의 실천

내쉬는 실천적 관점에서 기독교 사랑의 몇 가지 핵심적 관념들을 생태적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한다.²⁰⁾ 첫째, ‘은혜 베푸심’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서의 사랑은 남의 일을 돌보는 것(빌 2:4)이며 서로 섬기는 것(갈 5:13)이다. 또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부당하게 갇힌 자를 돌봄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마 25:31-46)이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인간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내쉬는 ‘친절하게’ 대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딱따구리의 거주 공간과 식량 확보를 위해 죽은 나무의 밑동을 그대로 남겨둔다거나 여우 굴을 찾는 빈도를 낮춤으로써 여우들의 생존의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다.²¹⁾ 이렇듯 “공기, 물, 토양, 성층권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종들이 그들의 서식처에서 그 안정성과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돕는 행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²²⁾

둘째, ‘타자 존중’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고전 13:5) 몸의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기쁨과 아픔을 공감한다(고전 12:26). 생태환경에 대한 타자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쉬는 무엇보다도 모든 형태의

19) 위의 책, 238.

20) 내쉬는 기독교의 생태적 개혁을 모색함에 있어 그 근본은 기독교 사랑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여야 한다고 역설한다는 점을 이 지점에서 밝혀 두어야 하겠다. Nash, “The Bible vs. Biodiversity: the Case against Moral Argument from Scripture,”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 Nature and Culture* 3-2(2009), 235.

21) Nash, 『기독교 생태윤리』, 239-40.

22) 위의 책, 240.

인간중심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구 삼림을 단순히 건축이나 가구 제작을 위한 목재감으로만 본다거나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의 자원을 인간의 개발 이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판단하는 것 등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타자 존중은 “자연계가 인간의 간섭에 의한 혜택과 상관없이 스스로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우고, 인간에 의해 초래된 자연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계에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 타자 존중은 피조세계의 진통을 함께 느끼고 괴로워하지만, 자연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갖가지 동식물을 돕는 길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개선했고, 아름답게 가꾸고, 길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임을 안다.”²⁴⁾

셋째, ‘수용성’이다. 타자와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의 행복한 삶을 소망한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실존을 위해 자기 자신도 타자에게 수용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존재 상호간의 의존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²⁵⁾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수용성은 ‘자기 충족성’과 대립한다. “오존층을 감소시키고,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온대림과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마구 멸종시키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는 지구의 다른 부분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사는 듯하다. 수용성은 인간과 지구의 다른 종들이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와 지구의 다른 요소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

23) 위의 책, 241-43. 이런 맥락에서 ‘모든’ 윤리는 생태윤리야 한다는 내쉬의 주장을 주목할 만하다. 모든 삶의 영역과 그 영역에서의 윤리적 이슈나 의제들이 생명세계(생태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기에, 생태적 혹은 생태윤리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그 모든 영역과 이슈·의제들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내쉬의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강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다. Nash, “Toward the Ecological Reformation of Christianity,” *Interpretation* 50(1996), 10.

24) Nash, 『기독교 생태윤리』, 243.

25) 위의 책.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²⁶⁾

넷째, ‘겸손’이다. 생태적 관계에서 겸손은 인간의 유한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보유한 존재가 결코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겸손은 인간의 문명적 능력이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부인하는 ‘오만, 교만’과 ‘대칭’되며,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망각하게 하는 ‘승리주의’를 치유하는 해독제이다. 또한 겸손은 “가치를 무시하고, 자연이 지닌 잠재력의 한계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바로잡는 치료제가 된다. 그러므로 겸손은 소박함과 검소함, 그리고 방종을 제어하는 절제와 서로 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다섯째, ‘이해’이다. 이해로서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눅 10:27),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아는 만큼 혹은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대상을 더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은 그만큼 깊어질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대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한다. 대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이해라는 측면은 생태적 관계에 더욱 절실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내쉬는 강조한다.²⁸⁾ 그의 말을 들어 보자. “생태계에 대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단편적인 것이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데 종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먹이사슬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 종들이 어떻게 상호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아는 것이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위험은 무지와 태만이 결합된 인간의 행동이다. 즉,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뿔기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을 살충제를 이용하여 죽일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26) 위의 책, 243-44.

27) 위의 책, 245.

28) 위의 책, 247-48

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의존하고 있는 많은 종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무지한 행동이 역사 속에서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난다.”²⁹⁾

여섯째, ‘사킴’이다. 사킴으로서의 사랑은 사랑의 주체들을 조화롭게 묶어 주는 것이며(골 3:14),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평화의 줄로 묶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사킴은 “분리를 해결하는 것이요, 관계 속에서 온전함과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요, 사랑의 묶는 힘을 보여주는 마지막 표지”이다. 사킴으로 성취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로 묶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과 독특성이 보존되기를 바라며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킴 혹은 화해의 온전한 실현이기 때문에 사킴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특별히 내쉬는 생태계 위기의 맥락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논하면서 이 둘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연결됨’을 고려할 때 인간이 초래한 위기는 인간종에게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큰 고통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³¹⁾

기독교 사랑의 본성과 생태적 실천을 연계한 내쉬의 논의에서 탐색할 수 있는 규범적 통찰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보자.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인간과 공존하는 모든 존재들을 인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존중하며 그들을 동등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돌보고 섬기는 책임적인

29) 위의 책, 248-49.

30) 위의 책, 250.

31) Nash, “Ethical Concerns for the Global-Warming Debate,” *The Christian Century* 109-25(1992), 774.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적인 삶을 위해 인간은 동료 생명들을 정확하게 또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온전한 잠재성의 실현과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상호의존성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생태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귄과 공동체 형성을 궁극적 목적(결실)으로 설정하고 모든 존재들을 묶어 하나의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3) 생물의 권리

권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목적으로 귀하게 여기신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수단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 그 이상 곧 목적 자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내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이 아닌 유기체(동물과 식물)는 다른 것들을 위한 수단 이상의 존재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체 중심적인 가치에 충실하고 다른 피조물을 생물학적 친족으로 대우하는 모든 도덕 행위자는 능동성을 지닌 모든 종(種)들을 존중해야 한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살려는 의지’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불러일으킨다.”³²⁾

생물의 권리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쉬는 생물의 권리장전³³⁾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보장 받고 향유해야 할 기

32) Nash, 『기독교 생태윤리』, 281.

33) 위의 책, 290-95.

본적인 생물의 권리들을 제시한다. 크게 여덟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데, “존재하기 위하여 자연의 경쟁에 참여하는 권리,”³⁴⁾ “개체 생물이 자신의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필요와 기회를 만족스럽게 가질 수 있는 권리,”³⁵⁾ “건강하고 온전한 서식처를 가질 권리,” “자신과 같은 종류를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 “인간에 의해 멸종되지 않고 자유롭게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잔인하고 악독하고 경솔한 사용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인간의 행위에 의해 붕괴된 자연이 본래 상태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인간의 개입을 통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³⁶⁾ “종의 생명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³⁷⁾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에게는 자명한 것이어서, 그

34) 여기서 내쉬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자연의 질서를 판단하지 말고 다른 생명들의 생존의 질서를 그들의 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종들의 복리와 그 개체들의 수가 최대한 확보되는데 대하여 도덕적인 관심을 보이는 최선의 길은 인간의 보호나 간섭 없이 종들과 그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며, 생존을 위한 투쟁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잔혹한’ 육식동물을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한다거나 생태계를 길들여서 ‘온순하고 부드러운’ 질서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세, 즉 자연의 거칠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질서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위의 책, 292.

35) 자연 존중은 우선적으로 개별 생명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존재방식’의 체계와 생존의 근거가 되는 원천을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힘쓰는 데 있다고 내쉬는 강조한다. 위의 책, 292-93.

36) 자연의 복원을 위해 인간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내쉬는 몇 가지 구체적인 보기를 제시한다. “복구를 위한 활동으로 우리는 오염된 강과 만(灣)을 깨끗하게 만들고, 인공부화를 통해 희귀한 맹금류를 번식시키며, 험벗은 광산을 복구하고, 소택지의 물을 조절하며, 캘리포니아 떡갈나무 덩불과 같은 어떤 생태계의 경우, 자연이 활력을 유지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 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위의 책, 294.

37) 이 항목은 “어떻게 하면 자연에 따른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같은 종류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종들에게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느냐”에 관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은신처 확보와 유지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습지나 어떤 서식지에서 ‘그물 손실 방지’(no net loss) 관념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책, 294-95.

들과 함께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은 생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내쉬는 주장한다.³⁸⁾ 특별히 그 권리를 철회하거나 제한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도덕적 이유를 명백하게 또 정당하게 제시해야 하고 ‘분별력’과 ‘균형감각’을 견지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⁹⁾ “균형감각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과 그 서식처에 손상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조언해 준다.... 분별력의 원칙은 파괴적인 행위가 일반화되고 분산되기보다는 의도한 목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변의 죄 없는 것들’이 해를 받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가르친다.”⁴⁰⁾ 이런 맥락에서 자명한 생물의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들(혹은 근거들)을 정당하게 또 타당성 있게 정립하는 것은 필요한 윤리적 과업이 될 것이다. 내쉬는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생물의 권리를 적절히 옹호하고 또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생태적 실천에 유익하다. 그 이유들로 내쉬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음식, 옷, 집, 의약품),” “귀중한 인간의 가치 실현(인간의 창조성 실현, 운송, 교역 등을 통한 문화생활 - 그러나 검약과 유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기 방어활동 - 곡식을 파괴하는 해충, 해로운 박테리아, 도시의 쥐, 집요하게 달려드는 모기를 물리치기 위한 대책,” “지나치게 번성하는 종의 숫자 조절 - 특히,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을 초과하는 생태학적 외래

38) 이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생태적 공공선(ecological common good)의 개념을 주목할 만하다. 내쉬는 개체들의 권리라는 관점 뿐 아니라 특정 종 혹은 모든 생물종들의 권리라는 관점을 존중하면서 생물의 권리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생명체라면 모두가 본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생물종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명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역설한다. Nash, “Biotic Rights and Human Ecological Responsibilities,”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993), 161.

39) Nash, 『기독교 생태윤리』, 295-96.

40) 위의 책, 297.

종의 정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자연의 경쟁에서 밀리고 약탈자의 공격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하고 연약한 종이나 아종(亞種)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생태학적으로 필수적인 종의 보호, 여기에는 먹이사슬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양의 특정한 미생물” 등을 포함시킨다.⁴¹⁾

2. '생태적 동등배려'론과의 비평적 대화 탐색

권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른 생명들에게도 적용되고 또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단적 지위로가 아니라 수단 이상의 지위 곧 목적의 지위를 정당하게 점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내쉬는 주장하는데, 이러한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신적 창조와 연동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가치인식에 그 뿌리가 있다. 특히 슈바이처의 사상을 존중하면서, 내쉬가 살려는 의지를 생명경외의 공통적 근거로 확인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생명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정리하고, 그 사랑을 생태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진지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쉬는 자연 사랑을 정당한 도덕적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본 대로, '타자 존중'의 생태적 적용을 통해서 내쉬는 자연과 그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들을 단순히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자원으로 보는 인간중심적 관점을 경계하고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목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한다. 이러한 신념을 동등배려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인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목적 자체로 정당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자연의 존재들을 목적으

41) 위의 책, 296-97.

로 존중하며 그들에 대해서 사랑의 도덕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생태적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대상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타적 돌봄과 섬김이 요구되며 스스로를 낮추어 사랑의 대상에 다가서고 가까이 사랑하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갖추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대상의 생존에 이바지하는 사랑의 실천이 되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야 할 도덕적 과업인 것이다. 다만 기독교 사랑에 대한 내쉬의 생태적 해석과 적용은 인간이 아닌 자연의 다른 생명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개별 생명체의 생존, 전체 생태계의 보존과 유지 등을 주된 가치로 삼는 생태적 틀을 강하게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생태적 사랑은 개별 생명체들이 본성적으로 주어진 생명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그 생명체들이 함께 형성해가는 전체 생명세계를 조화롭게 보존·유지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할 때 참된 사랑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 모든 존재를 도무지 축소할 수 없을 만큼 짙은 가치의 존재로 또 다른 어떤 것에도 환원(혹은 환치)될 수 없는 독보적 가치를 보유한 존재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포하는 동등배려의 대상 이해와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내쉬의 생태적 사랑은 대상에 대한 가치인식보다는 개별적 전체적 생명과 생태질서의 보존·신장이라는 목적 구현에 더 큰 비중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의 과정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더하여, 인간의 행위가 전체 생태계에 또 역으로 생태계의 개별 구성원이나 전체 생명세계가 인간종에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태적 사랑은 자기사랑의 동기와 목적을 내포하

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여야 하겠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동등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내쉬는 신학적 도덕적 관점에서 구분을 설정하는 듯하다.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에 고유한 생명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에 부합하여 생명의 잠재성과 계획을 충분히 실현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방향에서 애정 어린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다만 내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 사이에 생명의 목적이나 계획 혹은 역할의 관점에서 차이를 두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덕 행위자로서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필요성과 역량에 관한 논의를 ‘인간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러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구원론적 관점에서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구분이 탐지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선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론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내쉬는 경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쉬의 생태적 사랑은 규범적으로 일방향성을 포함하는가? 기독교 사랑의 특징을 ‘은혜 베품’으로 규정하고 이 개념을 생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하게 열어 둔다는 점에서, ‘은혜 베품’에 내포된 이타적 희생과 섬김이 생태적으로 구현될 때 대가나 반응을 바라지 않는 일방향적 사랑의 실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본 대로, 개별 생명의 생존과 전체 생태질서의 보존·신장에 기여하는 행위를 초점으로 해서 생태적 사랑을 논한다는 점에서, 내쉬의 이해는 사랑의 행위가 가져다 줄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생물의 자명한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이유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생태적 해악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당화한다는 점도 반대급부의 고려의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의 필요나 복지 그리고 최선을 고려하는 ‘배려’의 관점에서 내쉬는 충실하게 생태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핀 대로, 개별 생명과 전체 생명세계에게 주어진 질서와 잠재성을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견지하며 생태적 사랑을 전개함으로써 대상의 ‘최선’을 온전히 파악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배려’의 규범적 중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생태적 사랑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몇 가지 신학적 윤리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들이 생태적 사랑 실천의 성숙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모범으로 삼아 동료 존재들에 대한 사랑에 힘쓸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삼위일체론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 trinity)와 경륜적 삼위일체(economic trinity)의 관계성이라는 주제이다. 전자는 삼위의 ‘안’을 향한(*ad intra* <아드 인트라>) 그리고 후자는 ‘밖’을 향한(*ad extra* <아드 엑스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다룬다. 전자의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은 상호침투하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의 일치체를 이룬다.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밖’을 향한 존재와 활동은 ‘밖’을 향한 존재와 활동에 상응한다. 여기서 창조하신 인간과 역사와 세계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의 내용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사랑이며 온전한 사권을 추구하는 사랑이다. 창조자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지으신 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궁극적 완

성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 이 사랑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 주시는 분이다(마 5:45).

하나님은 초월하실 뿐 아니라 임재(내재)하시는 신적 존재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학적 신념이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임재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인생과 세계와 역사를 지탱하고 보존하고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의 증언대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의 대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랑의 길일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 세계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 그리고 세계 안의 존재들과의 바른 관계 형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랑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다. 정복하라는 명령을 적절치 못하게 해석해 온 역사를 기독교는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명령은 인간 본위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용’을 내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인간의 뜻을 따라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때론 착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다. 개발하고 이용하고 인간의 영역을 넓혀 간다는 의미에서의 정복이 아니라, 다스림 혹은 리더십의 개념을 더 강화

게 내포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다스림, 어떤 리더십인가? 창세기 2장 창조 이야기의 관점에서 읽으면 섬기는 리더십이다. 창세기 2장 15절에 따르면, 경작하고 돌보아야 한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을 받는 히브리말 동사는 <아바드>(אָבַד)로, 섬기다, 예배하다, 중으로 일하다 등의 뜻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피조세계와 다른 피조물에 대해 섬김과 돌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피조세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학적 진실로부터 생각한다면, 인간의 다스림은 청지기적 다스림이다. 궁극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존재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또 실제적으로 동역을 구현해야 한다.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세우셨다’ 말씀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선언하신다(시 119: 89-91).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기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 부름 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소망·지향하며 동료 인간 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동료 존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소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궁극적 결실로서의 ‘코이노니아’(혹은 친밀한 사귄)를 온 세계와 세계 안의 모든 존재로 확장하기 위해 힘쓸 것을 제안한다. 앞에서 살핀 대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을 하나의 그물망으로 연결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형성·유지해 가신다. 특별히 성령이 일구어 가시는 공동체를 성경은 가족의 유비로 설명함에 유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며 하나님의 가족의

으뜸이라고 증언한다(롬 8장; 고전 15장). 그 뒤를 따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딸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의 완성 곧 궁극적 구원을 애타게 기다린다. 다만 인간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도 구원을 기다린다. 부활의 영광을 애타게 기다린다. 구원의 첫 열매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들도 구원의 완성을 함께 기다리는 것이다. 구원 받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적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충실하게 동참할 뿐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체 생명세계의 모든 존재들(자매형제들)과 더불어 친밀한 사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태적 실천과 삶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Moltmann, Jürgen. *Der gekreuzigte Gott*. 김균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 _____.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_____. *Der Weg Jesu Christi*. 김균진 · 김명용 역. 『예수 그리스도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_____. *Der Geist des Lebens*. Translated by Kohl, Margaret. *The Spirit of Lif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_____.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_____. *Das Kommen Gottes*. Translated by Margaret Kohl. *The Coming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Nash, James A.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이문균 역. 『기독교 생태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 _____. “Ethical Concerns for the Global-warming Debate.” *The Christian Century* 109-25(1992).
- _____. “Biotic Rights and Human Ecological Responsibilities.”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993).
- _____. “Toward the Ecological Reformation of Christianity.” *Interpretation* 50(1996).
- _____. “The Bible vs. Biodiversity: the Case against Moral Argument from Scripture.”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 Nature and Culture* 3-2 (2009).
- Outka, Gene. *Agape: An Ethic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Universal Love and Impartiality.” In *The Love Commandment: Essays in Christian Ethics and Philosophy*. Edited by Edmund N. Santurri and William Werpehowski.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 Press,

1992.

_____. "Agapeistic Ethics." In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Religion*. Edited by Philip Quinn and Charles Taliaferro, Oxford: Blackwell, 1997.

_____. "Comment on 'Love in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26(1998).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7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06일

• 국 문 초 록 •

생명세계의 온전한 질서가 보존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붕괴의 증후들을 선명하게 목격하고 있는 엄연한 생태적 위기의 현실 앞에서,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정언적 명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가치와 위치를 존중하고 그러한 존중을 이타적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자명한 신앙적 신학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신학적 윤리적 진실과 당위적 명령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바로서 인식하면서, 생태적 사랑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생태적 위기에 응답하고자 한다. 생태적 사랑의 신학적 정당화의 논지를 아웃카(Gene Outka)와 몰트만(Jürgen Moltmann)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며, 아웃카와 내쉬(James A. Nash)의 생태적 사랑론을 모색하고 또 이 둘 사이의 비평적 대화를 통해 생태적 사랑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진 아웃카, 위르겐 몰트만, 제임스 내쉬, 생태적 사랑, 기독교윤리
